

## HRD 7월의 이슈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부 추가경정예산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
- 폴리텍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청년·중소벤처기업 상생 이끌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총상금  
1,200만원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120개




'20~'24년간 직업훈련분야  
NCS 기반 훈련과정 운영  
140,663개



5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8%

Vol.112  
July 2025  
**07**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 근로시간 대신 실 보수(소득)로 변경돼 미가입 근로자 확인이 쉬워지고 직권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보험료 징수 기준 역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실 보수로 바뀌면서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들고, 구직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 기준도 실 보수로 통일돼 행정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cover story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 기반  
위에 내일의 노동시장을 탄탄히  
세워갑니다.

통 권 제112호  
발행일 2025년 7월 18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58  
구독신청 및 문의 1stlee2@hrdkorea.or.kr

### HRD 스페셜

- 04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 06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 HRD 현장

- 09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 10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성장전략
- 11 "내일배움카드로 시작된 변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12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미래지식포럼' 개최
- 15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 16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 16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 NCS 뉴스레터

- 17 NCS 활용 실태조사 개요

### 고용 BRIEF

- 19 2025년 5월 고용동향 분석

### 연구 INSIDE

- 20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 20 대전환 시기 직업능력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21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21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활용 현황과 과제

###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예비숙련기술인전수가 공급해요!

#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2025년 7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15시간 기준' 역사 속으로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 ('25.7.7.~8.18.)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사항은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고용형태 다변화와 N잡,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도입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또한, 국세 정보로 파악된 근로자별 소득자료를 토대로 가입 누락자를 직권가입시켜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아울러 국세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적용기준 변경 :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일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징수기준 변경 :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 왔다.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매년(3월15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보수총액/12개월)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 ③ 급여기준 변경 : 임금 → 실 보수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도 빨라진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면서 "1995년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5,837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변동 없이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되었다.

\*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2025년 새 정부 추경 예산 주요내용

- ◎ 목적 ①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②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 ◎ 규모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총 1조 5,837억원

### I. 총지출

□ 총 11개 사업(10개 증액, 1개 감액), +1조 5,837억원(+4.4%) 증액

→ 회계: ('25년 1차)5조 8,146억 → (2차 추경) + 2,575억

- ▲ 국민취업지원(+1,652억, 일반회계), ▲ 내일배움카드(일반)(+160억, 일반회계) ▲ 두루누리(+258억, 일반회계),
-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128억, 일반회계) ▲ 취약계층취업촉진(+20억, 일반회계), ▲ 진폐위로금(+450억, 예특회계)
- ▲ 숙련기술장려(△92억, 일반회계,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에 따른 불용)

→ 기금: ('25년 1차) 29조 8,109억 → (2차 추경) + 1조 3,261억

- ▲ 구직급여(+1조 2,929억, 고보기금),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101억, 고보기금),
- ▲ 클린사업장조성지원(+150억, 산재기금), ▲ 체불청산지원용자(+81억, 임채기금)

###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 (단위:억원, %)

회계·기금별	'24년	'25년		증감 (B-A)	증감율 (%)	
	본예산	본예산	1차 추경(A)			2차 추경(B)
● 총지출(a+b)	336,825	353,452	356,255	372,092	15,837	4.4
- 예산지출(a)	58,151	57,549	58,146	60,722	2,575	4.4
· 일반회계	51,306	51,469	51,766	53,891	2,125	4.1
· 특별회계	6,845	6,080	6,380	6,831	450	7.1
- 기금지출(b)*	278,674	295,903	298,109	311,370	13,261	4.4
· 고용보험	164,058	178,066	178,219	191,249	13,030	7.3
· 산재보험	98,222	100,176	100,242	100,392	150	0.1
· 임금채권	5,431	6,285	7,793	7,875	81	1.0

\* 기금 지출 총액은 추경 대상이 아닌 장애인고용기금, 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된 것임

## II. 주요 내용

### 1. 고용안전망 보강

→ **실업자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 →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 (+1조 2,929억, +18.7만명)

☑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1일 최대 6.6만원, 120~270일)

👉 신청기간 '25. 7월~12월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신청

→ **취업취약계층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1만명) 신설** (+1,652억, +5.5만명(1유형 +2.7만, 2유형 +2.8만(특화 1만))

☑ 국민취업지원: 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소득 지원(6개월, 요건 충족시)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2차 고용안전망)

👉 신청기간 '25. 7월~12월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신청

### 2.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 **고교 재학생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160억, 5,180명 → 7,000명(+1,820명))

☑ 일반고 특화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 내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20만원 한도 제공))

→ **구직 청년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 위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20억)**

☑ 지역·산업 특화 취업박람회: 중앙-지역 협업에 기반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취업박람회 등 지역 주도 특화 취업프로그램 운영(비수도권 5개 권역)

👉 개최시기 '25. 9월~  
참여방법 개최 지역 등 확정 후 참여 방법 별도 안내 예정

→ **재직 청년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훈련 확대** (+101억, 공동훈련센터(30→35개소), 대중소상생아카데미(100→150개))

☑ 컨소시엄 훈련: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체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 실시, 정부는 인프라·프로그램 비용 등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2025년 7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중소기업 근로자 인공지능(AI) 훈련 지원을 위한 대기업 상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새 정부 추경 통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7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 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7운영기관 생성형 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 훈련 성과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프로그램 공모(~8.4),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공모(~7.31.)  
임명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산업현장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여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전환(AX)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공모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경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공동훈련센터 신규 공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 ▶ **공동훈련센터** 신청기간 '25. 6. 11.~7. 31.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hrdkorea.or.kr)
- ▶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신청기간 '25. 7. 7.~8. 4.  
신청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www.hrdkorea.or.kr)

### 3.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

▶ **체불근로자 1차 추경(대지급금 +1,508억)에 이어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체불청산지원용자 금리 인하규모 확대 (+81억, 금리 인하(3개월 한시, 사업주 최대 3.7→2.7%, 체불근로자 1.5→1%))**

- ✔ **체불청산지원용자**: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용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와 체불근로자에게 용자(대출)를 실시하여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및 생계지원 도모

- ▶ 신청기간 '25. 7. 15.~10. 14.(용자실행일 기준)  
신청방법 사업주용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방문 전 지방노동관서에서 용자대상 사업주 확인 필요), 근로자용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통해 신청

▶ **영세사업장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등) 지원 확대 (두루누리 +258억, 폭염예방장비 +150억(+4,762개))**

- ✔ **두루누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 270만원 미만)·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 ✔ **폭염예방설비투자(클린사업장조성지원)**: 혹서기(6~9월) 폭염 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구입비용 일부(70%) 지원

- ▶ **두루누리** 신청기간 '25. 7월~12월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or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통해 신청
- ▶ **폭염예방설비투자** 신청기간 '25.. 7월  
신청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통해 신청

▶ **특고·자영업자 등 소득 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128억, +8,500명)**

-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특고·프리랜서·1인사업자 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 지급

-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or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통해 신청

▶ **진폐근로자 대법원 판결('25.3월)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 차액 지급(+450억, +2,308명)**

- ✔ **진폐위로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진폐위로금(재해·장해·유족위로금)을 지급

#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성장전략



2025년 7월 4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성장전략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4일(금) 14시, 한국고용정보원·한국무역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고령화 및 외국인력 정책 방향 등 산업·정책 대응방향 논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7월 4일(금) 1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외국인력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시장 및 산업현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한 인력정책 전략을 집중 조망했다.

## [세션 1]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전반적 흐름과 사회경제적 함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조태형 한국은행 부원장은 “인구 뉴노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이 한국 사회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이 노동시장, 복지 재정,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정순기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중장기 노동시장 수급 전망”을 주제로, 향후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입직 지연과 중장년층 노동시장 잔존율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수급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직무 전환이 병행되는 환경에서 연령대별 직업훈련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은선 산업연구원 위원은 “산업 성장전략과 외국인력 유입”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내국인 기피 직종에 대한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짚고, 선제적 외국인력 유입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인력 공급을 넘어 장기 체류 기반의 숙련인력 확보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세션 2]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인력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수요 변화와 외국인력 활용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김새봄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산업별 분포 특성”을

분석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성 격차 및 사회통합 이슈가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석 한국무역협회 차장은 “무역업계 외국인력 수요와 현장 애로사항” 발표를 통해, 회원사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비자 제도 복잡성, 숙련 인력의 유출 우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외국인력 유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매력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급인력 대상 이민 제도 개선, 장기 체류 인센티브 강화, 정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력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실장을 좌장으로 각 발표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령대별 직무 역량 제고,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간 균형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발표자들은 “인력정책의 초점은 공급 확대뿐 아니라 질적 고도화, 지속 가능성 확보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요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내일배움카드로 시작된 변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25년 5월 1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내일배움카드로 시작된 변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개최(7.7.~8.10.)

고용노동부는 7월 7일(월)부터 8월 10일(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aeilcard.com>)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 창업, 이직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누구나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직에 성공한 국민 누구나이며,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수)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주제**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K-Digital Training을 통한 **취·창업, 이·전직 등의 성공사례**
- 공모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자
-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naeilcard.com](http://www.naeilcard.com))를 통한 온라인 접수  
\*우편·이메일·방문접수 불가
- 공모양식**  
출품 형태의 세부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 내 공모전 소개 및 공지사항 참고 ※

구분	수량 및 형태
수기	한글 또는 워드파일 수기 1편 (12pt 기준, A4 1~3쪽)
영상	3분 이상 스토리텔링형 영상 (개인 유휴브 채널에 @정부공개 계재 후 링크 제출)

- 제출서류** · 공모전 참가신청서  
· 사례 수기 및 영상(유튜브) 링크 제출  
· HRD-Net 훈련참여이력, 수료증, 국민내일배움카드 시본 중 1개 제출
- 공모기간**  
2025년 7월 7일(월) ~ 2025년 8월 10일(일)  
※ 수상작 발표 : 2025년 9월 10일(수) 예정
- 시상 내역**  
총 상금 1,200만원 및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최우수상·우수상) 수여

수기·콘텐츠	인원	상금
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2명	150만원
우수상	4명	100만원
장려상	7명	20만원
입상	16명	10만원

- ※ 심사 결과 작품 수준 등을 고려, 수상 내역 변동 가능
- 문의사항**  
공모전 운영사무국, 10:00~17:00(평일) \*접심시간 12:00~13:30  
☎ 02-6933-4698 ■ [naeilcard\\_contest@naver.com](mailto:naeilcard_contest@naver.com)

#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2025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재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이·전직) 분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재취업 성공률과 평균 소요 기간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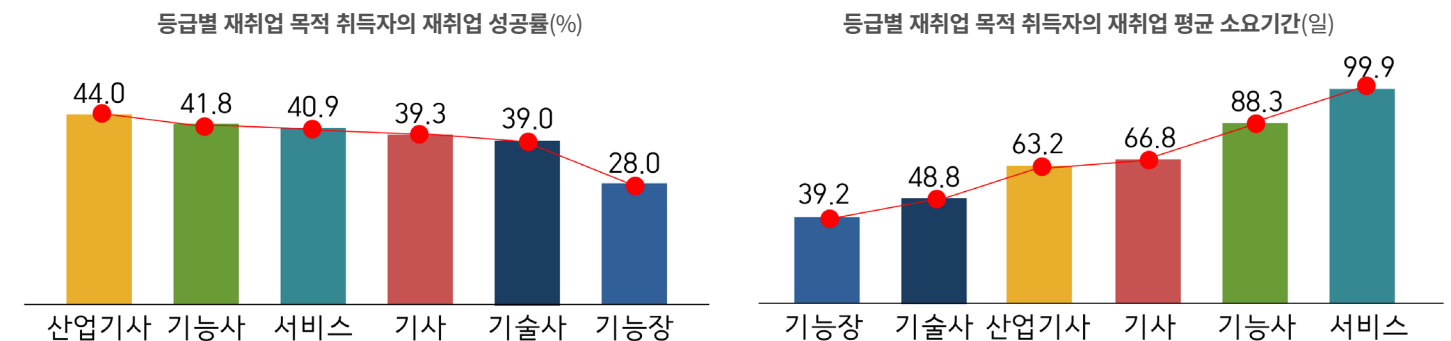
\* '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이전직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자격 취득 후 재취업 및 사업장 변경이력(24년 7월 말 기준)을 분석

###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재취업 성공률 및 재취업 소요 기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61만 명, 2023년) 중 재취업(이·전직)을 목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다는 응답자\*는 24,031명(3.9%)을 차지했다.

이들 중 재취업에 성공\*한 평균 비율(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은 41.1%, 평균 소요 기간은 78.9일로 나타났다.

\* 취득 당시에는 '미고용' 상태였으나 취득 후 재취업한 경우와 취득 당시 '재직' 상태였으나 취득 후 소속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이들 자격 등급별로 살펴보면 산업기사가 44.0%로 가장 높은 재취업 성공률을 보였으며, 기능사 41.8%, 서비스 분야 40.9%, 기사 39.3%, 기술사 39.0%, 기능장 28.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취업 소요 기간은 기능장 39.2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기술사 48.8일, 산업기사 63.2일, 기사 66.8일, 기능사 88.3일, 서비스 분야 99.9일로 나타났다.

재취업 목적의 취득자가 가장 많은 직무분야는 건설, 안전관리, 전기·전자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등급별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기술사기능장은 위험물기능장(132명), 기사 등급은 산업안전기사(1,910명), 산업기사 등급은 산업안전산업기사(649명), 기능사 등급은 지게차운전기능사(3,143명),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16명)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직무분야와 성공률 및 소요기간

순위	직무분야	재취업목적 취득자 수(명)	재취업자수(명)	재취업 성공률(%)	평균 소요기간(일)
1	건설	7,837	3,226	41.2	86.1
2	안전관리	5,445	2,185	40.1	65.5
3	전기·전자	2,304	1,106	48.0	62.5

재취업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 종목

순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분야	
	종목명	취득자 수(명)	종목명	취득자 수(명)	종목명	취득자 수(명)	종목명	취득자 수(명)	종목명	취득자 수(명)
1	위험물기능장	132	산업안전기사	1,910	산업안전산업기사	649	지게차운전기능사	3,143	직업 상담사2급	516

한편,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취득자 50인 이상 중)은 각 등급별로 전기기사가 48.6%, 전기산업기사 60.8%, 승강기기능사 58.2%, 직업상담사 2급 44.6%로 나타났으며,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취득자 수 30인 이상 중)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에너지관리기사 42.2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43.7일, 자동차정비기능사 52.7일, 사회조사분석사 2급 82.6일로 나타났다.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자격 종목

순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분야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1	소방기술사 (3/3)	100	전기기사 (270/555)	48.6	전기산업기사 (247/406)	60.8	승강기기능사 (57/98)	58.2	직업상담사2급 (230/516)	44.6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자격 종목

순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종목명(재취업자수)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수)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수)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수)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수)	소요기간(일)
1	교통기술사(1)	-	에너지관리기사 (51)	42.2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49)	43.7	자동차정비 기능사 (59)	52.7	사회조사 분석사2급(79)	82.6

### “정책 연령별 재취업 성공률이 높고 재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종목은?”

정책 연령별로 재취업 성공률을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이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층(55세 이상) 40.2%, 중장년층(35세~54세) 37.9%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고령층이 75일로 가장 짧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종목은 산업안전기사(1,134명),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각각 1,633명과 37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재취업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 종목

순위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35~54세)		고령층(55세이상)	
	종목명	취득자수(명)	종목명	취득자수(명)	종목명	취득자 수(명)
1	산업안전기사	1,134	지게차운전기능사	1,633	지게차운전기능사	379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청년층의 경우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가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기산업기사 57.1%, 미용사(피부) 57.0% 순이었으며,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경우 전기산업기사가 각 63.0%,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층에서는 설비보전기사가 60.7%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자격 종목

순위	청년(19~34세)		중장년(35~54세)		고령(55세이상)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 (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1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39/61)	63.9	전기산업기사(102/162)	63.0	전기산업기사(65/104)	62.5

재취업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은 청년의 경우 전기산업기사 55일, 중장년과 고령층은 건축설비기사가 각각 35.5일과 32.5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연령별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자격 종목]

순위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35~54세)		고령층(55세이상)	
	종목명(재취업자 수)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소요기간(일)
1	전기산업기사(80)	55.0	건축설비기사(37)	35.5	건축설비기사(36)	32.5

"성별 재취업 성공률이 높고 재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종목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재취업 성공률이 41.3%, 여성은 40.5%로 나타났으며, 재취업 소요기간은 남성 73일, 여성 93.5일로 남성이 짧게 나타났다. 남성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이며, 여성은 직업상담사2급,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성공률이 높은 자격 종목은 남성의 경우 전기산업기사가 60.8%,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가 5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양식조리기능사 57.1%, 웹디자인기능사 5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은 종목]

순위	남성		여성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률(%)
1	전기산업기사 (236/388)	60.8	양식조리기능사 (48/84)	57.1

재취업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은 남성은 설비보전기사 42.3일, 건축설비기사 42.6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건설안전기사 51.2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 69.6일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종목]

순위	남성		여성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 소요기간(일)	종목명(재취업자/취득자)	재취업소요기간(일)
1	설비보전기사(95)	42.3	건설안전기사(54)	51.2

"건설·안전관리·전기전자 분야 재취업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필수!"

최근 4년간 재취업(이·전직) 목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목적 취득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1,000명 이상 중)는 안전관리 분야로 2020년 대비 2배 이상('20년 2,279명 → '23년 5,45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분야는 1.7배, 전기전자분야는 1.5배 증가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건설과 안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었고, 이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자격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취업 성공률이 높고 평균 재취업 소요일수도 짧아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고용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은 이·전직 등 재취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재취업에 국가기술자격의 보유는 돋보이는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취업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분석은 개인별 직업능력개발 및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유용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미래지식포럼' 개최



2025년 6월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 미래지식포럼'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의 혁신과 나아갈 방향 모색, 분야별 전문가 및 옴부즈만 참여해 사업주 훈련과 일학습병행 등 주요 훈련사업의 발전 방향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9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기업과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방안으로는 시발점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는 환경속에서 액티브파워

시니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방향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학습병행이 자격취득과 직무능력은행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과, AI 대체 가능한 분야와 불가능한 분야를 선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훈련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활용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훈련 수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도출 되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2025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디지털 미래인재를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 추가 운영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등 디지털 대표기업과 함께하는 실무 프로젝트형 훈련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금),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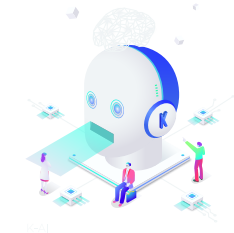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었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화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훈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훈련기관별 누리집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고용환경도 큰 변화를 보인다."라며,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지속해서 양성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2025년 6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폴리텍대학, 일자리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교육 기회 대폭 확대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자부터 재직 중 근로자, 자영업자도 지원 가능 -
-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원하는 교육 기간으로 선택 폭 확대

**#. 26년간 전기 기계 설비 분야에서 일해 온 조준하(46-남) 씨**는 경기 침체로 전직을 결심하고, 구미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전기과에 입학했다. 전기설비제어 기초부터 배워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학과 교수의 권유로 기능장 자격에 도전했고, 하루 15시간 이상 공부에 매진한 끝에 6개월 만에 전기기능장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그는 전기 분야 취업은 물론, 기능장 자격을 바탕으로 강의 보조 등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다. 조 씨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다”라며 신중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중년들에게 용기 있는 도전을 권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장년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모집을 시작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만 40세 이상 구직자에 한정되었던 교육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넓히고,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도 다양하게 구성해 수강자가 원하는 직종과 단계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생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고려해 야간·주말 과정과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경력과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배움을 넘어, 중장년층에게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40세 이상 전직 및 재취업 희망자이며,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과정별 모집 일정과 상세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 (www.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년퇴직 후 순천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 산업설비과에 입학한 이○일(64-남) 씨**는 약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며 재취업 경쟁력을 높였다. 앞서 진주캠퍼스에서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후 재취업 경험이 있었던 그는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재입학을 결심했다. 지도교수의 권유와 격려로 기능장 시험에 도전해 합격했고, 현재는 수료 전 취업을 목표로 공조냉동산업기사 자격에도 도전하고 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2025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본격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아, 오토큐 협업 훈련, 전국 11개 기관에서 훈련 실시, 채용 연계도 기대

고용노동부는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의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전국 11개 직업훈련기관에서 본격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 간에 체결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수 있으며, 오토큐 채용 시에 2년 경력에 준하는 ‘새내 기술자격 레벨 1’이 부여될 예정이다. \* 특정 자격 분야에 맞게 설계된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치면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오토큐 등 주요 차량관리센터에서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 행사를 진행하고, 우대 채용을 통해 훈련성과가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액 지원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31.6만 원의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훈련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훈련기관과 운영 일정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명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 중인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이 이번 훈련의 핵심”이라며,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오토큐 내 정비인력 약 500명 이상 부족(기아 자체 조사)  
△전체 자동차산업 부족 인력 중 61%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인력(한국자동차연구원)  
이번 훈련과정은 기아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현장성을 높였으며, 배터리, 모터 등 교육용 정비 부품과 훈련기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완성차 실습 교보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이번 훈련은 ‘과정평가형’으로 설계되어, 훈련을 충실히 이수하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 NCS 동향



## I. NCS 활용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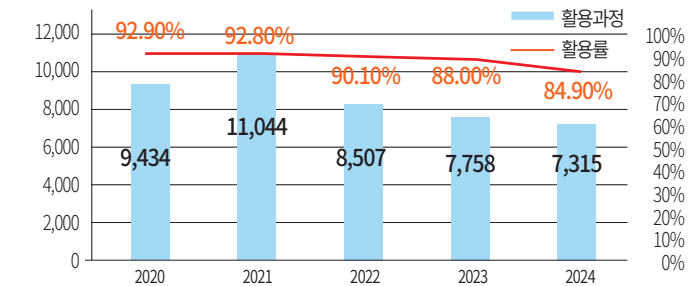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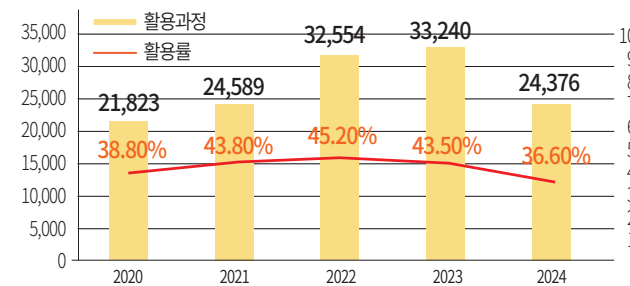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하며, ‘25년 현재 24개 대분류, 81개 중분류, 273개 소분류, 1,100개 세분류가 개발되어있다. NCS는 ’02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별도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0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발 주체가 일원화되었다. 이후 ’13년부터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3~’18년까지 948개의 세분류가 개발되었으나, 별도의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활용현황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따라 NCS 활용 실태조사가 시작되었다.

NCS 활용 실태조사는 크게 데이터 기반 NCS 활용 실태조사(통계조사)와 실증적 NCS 활용 실태조사(설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교육, 훈련, 자격, 기업활용 4개 분야의 현장 활용 현황을 활용 빈도(교육과정, 훈련 과정, 채용과정 등에 몇 번이나 쓰였는지)와 활용 만족도(NCS활용 기관 대상 전화 설문조사)를 조사하여 세분류 별 활용 지표 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를 차기년도 개선대상 직무 선정에 활용한다. 이 중 훈련분야 NCS 활용 실태조사는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훈련 등 7개 정부지원 훈련사업의 NCS 활용실태를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년(’20 ~ ’24년) 활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훈련분야 전반의 NCS 활용이 NCS 의무적용 요건 완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NCS 의무적용에 따른 활용 외에도 NCS를 활용할 유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I. 훈련분야 NCS 활용 현황 세부내용

### 1. 훈련분야 NCS 활용 전반

’20~’24년간 직업훈련분야에서 NCS 기반 훈련과정은 총 140,663개 (전체 315,997개 중 44.5%)가 운영되었다. ’22년 이후 훈련분야에서 NCS 의무 활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활용률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재직자훈련에서 활용률이 낮으며, 실업자훈련의 경우 여전히 80%대의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진적 하락세가 관찰된다. 활용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훈련과정 심사기준의 완화, 단기훈련 감소 및 장기훈련 증가, 신기술 중심의 훈련내용 변화, 일부 분야(예: 조경) 훈련비 지원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활용 급증 세분류

☑ **개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세분류와 평생교육 분야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주훈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서비스기획, 일학습병행에서는 빅데이터기획 세분류 활용이 두드러진다.

☑ **현장 수요 반영** 신설 또는 의무화된 분야(예: 보육, 요양지원)와 신기술 융합 분야에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구분	사업주	일학습	컨소시엄	지산맛	내일배움	국가전략
1위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평가	빅데이터기획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구축	기계수동조립	이용	건축도장시공
2위	방문판매	경력지도	인공지능 모델링	반도체제조	건축도장시공	수출입관리
3위	IT마케팅	방송콘텐츠제작	천장크레인운전	내선공사	헤어미용	영상편집

### 3. 활용 급감 세분류

☑ **개요** 반도체개발, 빅데이터플랫폼구축 등 일부 미래유망직무 세분류의 활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NCS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제도 및 정책 변화 영향** 조정관리, 응용SW엔지니어링 등은 제도적 변화(훈련비 지원 제외, 신설 세분류 등장 등)로 활용이 급감하였다. 이처럼 활용 급변 세분류는 정부 정책, 산업 트렌드, 현장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분	사업주	일학습	컨소시엄	지산맛	내일배움	국가전략
1위	반도체개발	위험물운송·운반관리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응용SW 엔지니어링	요양지원	조정관리
2위	비서	외선공사	자동제어 시스템운영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소물리에	구매관리
3위	보건교육	용접공통직무	태양광 에너지생산	기계요소설계	병원행정	자재관리

### 4. 개발·개선 기관별 NCS 활용 현황

☑ **ISC(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담당 세분류는 전체의 71.7%를 차지하며, 평균 활용 훈련과정수는 722.4개로 전체 평균(543.9개)보다 32.8% 높다.

☑ ISC 외 기관 세분류는 28.3% 비중에서 평균 활용과정수 296개로, 전체 평균보다 45.6% 낮다.

☑ 활용빈도 상위 ISC는 경영·회계·사무(3,230.3개), 음식서비스·식품가공(2,454.9개), 보건·복지(2,222.0개) 순이다.

☑ '21년, '22년 개선된 세분류의 활용빈도는 개선 전 대비 각각 16.7%, 34.1% 증가했다. 특히 ISC 외 기관이 개선한 세분류의 활용빈도 증가 폭이 더 컸다('21년 51.5%, '22년 68.2%). 이는 NCS의 지속적 개선이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 Ⅲ. 시사점

☑ **유관기관 협력 강화** 훈련정책, 심사기준, 과정 설계·운영, NCS 개발·개선 등에서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책 변화가 현장 활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 **NCS 자율 활용 확산** 훈련기관이 NCS를 자율적으로 편리하게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제도적 변화와 NCS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와 NCS를 접목해 다양한 분야의 NCS를 조합·활용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 **통계 및 조사체계 고도화** 현행 활용도 조사는 훈련과정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향후 훈련시간 등 가치치 반영, 과정 특성별 분석 등 정밀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

☑ **NCS 활용조건 규명** 훈련과정별 인원, 기간 등 세부 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어떤 조건에서 NCS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분석이 요구된다.



## 2025년 5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6. 11.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5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률(63.8%)·경제활동참가율(65.6%) 월간 역대 1위, 실업률(2.8%), 취업자수 +24.5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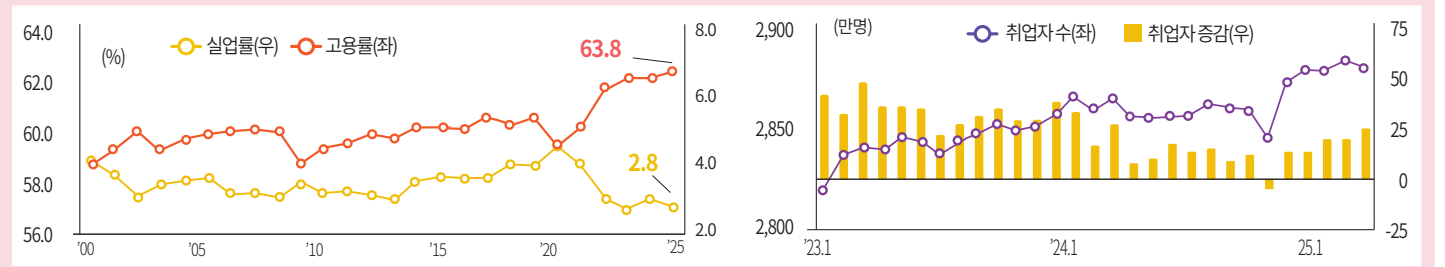
○ 5세 이상 고용률(63.8%, +0.6%p)·15~64세 고용률(70.5%, +0.5%p) 모두 역대 1위

○ 경제활동참가율(65.6%, +0.2%p) 역대 1위

○ 실업률(2.8%)은 하락(△0.2%p)하여 5월 기준 역대 최저 2위

○ 취업자수 전년대비 +24.5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4.4만명 감소

☞ ⇒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원계열, 매년 43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비)



☑ (산업별) 서비스업 증가 지속,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축소·농림어업 감소폭 확대

○ **서비스** 51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은 축소(+60.6 → +54.9만명)

- 보건복지(+23.3만)·금융보험(+7.2만)·전문과학(+11.7만) 등 증가폭 확대, 도소매(△0.3→1.8만)는 증가 전환

- 공공행정(+3.2만명)·정보통신(+4.9만명)·교육서비스(+7.0만명) 증가 지속

- 숙박음식(△6.7만) 감소 전환, 사업시설(△1.6만) 감소 지속

○ **제조** 식료품·기타기계·금속가공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12.4→△6.7만명)

○ **건설** 전문공사가 개선되며 감소폭 축소(△15.0→△10.6만명)

○ **농림** 전월 이상기온 여파 등으로 감소폭 확대(△13.4→△13.5만명)

☑ (지역·연령) 상용직 57.4%(+0.7%p), 3~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36.2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자영업자(고용有·고용無)·무급가족 종사자 모두 감소

○ **연령** 30대·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청년층·50대는 감소

- 청년층 고용률(46.2%, △0.7%p) 하락, 실업률(6.6%, △0.1%p) 하락 전환

- 청년층 쉬었음(39.6만명, △0.3만명)은 청년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세가 완화되며 13개월만에 감소 전환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대비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인구감소 대비 취업자수 큰 폭 감소하며 고용률 하락, 60세 이상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평가대응)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고용률 역대 최고. 다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

○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며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 제조업은 일평균 수출 증가(4월 △0.7→5월 1.0%), 식료품·기타기계 증가폭 확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 전월비(계절조정)로는 2개월 연속 증가(+2.8만)

- 건설업은 기저효과('24.4월 0.5만→'24.5월 △4.7만) 영향 등으로 감소폭 축소

○ 서비스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축소

- 공공행정·보건복지는 직접일자리사업 효과·돌봄수요 확대 등이 작용하며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전월 대비 증가폭은 소폭 축소

- 숙박음식업은 내수 부진 및 기저효과('24.5월 조사주간 석가탄신일 포함, '24.4월 2.9만→'24.5월 8.0만) 영향으로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0.1→△6.7)

○ 청년 고용지표 감소세는 지속되었으나 청년 취업비중이 높은(24.6%) 제조·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 축소

○ 향후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제조업·수출산업 등에 파급될 우려 상존하는 만큼, 관련 동향 면밀 모니터링

☞ ⇒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강화

①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안 신속히 마련

②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 확대 추진

③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없이 추진, 미취업·쉬었음 청년 고용서비스 지속 강화

#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년 3월 📄 연구자: 김상호, 이윤진, 박동찬, 고요한, 박동, 채창균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인적자원개발 전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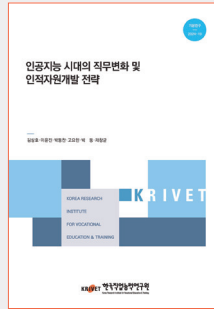


### 주요내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직무 분야별 인공지능에 따른 직무변화와 직무역량 변화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공지능에 의한 직무 대체 가능성 분석 및 대안 제시
- 인적자원(HR) 분야 중 채용, 인사관리, 교육훈련 분야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발굴
- AI시대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국가, 기업, 개인, 학계 단위에서 제시, 인적자원의 효과적 개발·활용 방안 모색

### 주요목차

- 인공지능 이슈 및 동향 탐색
-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변화 및 미래전망 조사
- NCS 대분류별 인공지능 관련 문헌 분석
- 인공지능 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이슈 조사
- 인적자원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 대전환 시기 직업능력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년 3월 📄 연구자: 윤수린, 류기락, 정재호, 문한나, 김승보, 홍선이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대전환 시기 직업능력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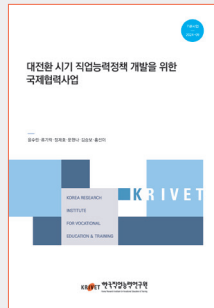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에 대비한 직업능력정책 개발을 위해 관련 해외 우수 기관들과 협력
- 해외 직업능력개발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대전환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관련 연구 소개

### 주요목차

- EU Skills2Capabilities WP2 프로젝트 공동 참여
-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 공동세미나 운영
- EU Skills2Capabilities WP3 프로젝트 공동 참여
- 전문가 델파이조사



#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보고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12월 📄 연구자: 이수현, 류기락, 반가운, 김지영, 류지은, 이정민, 유명환, 최현식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역량은 어떻게 변화했는가(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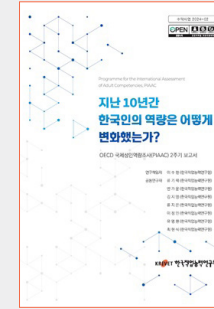


### 주요내용

- 2008년부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통해 각국 성인의 정보처리 기술과 활용 수준을 비교·분석
- 자동화와 기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 인력의 중요성
- PIAAC 2주기 성인스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지난 10년간 한국 성인의 스킬 변화 검토

### 주요목차

- 성인스킬조사는 무엇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스킬 활용
- 지난 10년간 한국 성인의 스킬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
- 한국의 나이대별 스킬 현황과 노동시장 성과
-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스킬



#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활용 현황과 과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12월 📄 연구자: 송승원, 송창용, 장광남, 손정은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활용 현황과 과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R&D 분야 재직자 및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 고급 인력의 '유치·양성·활용'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 모색

### 주요목차

-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 R&D 분야 외국인 재직자 실태
- 외국인 국내 박사 양성 현황
- R&D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 채용 실태
- 이공계열 외국인 대학원생 실태
-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과제





- 6.27 2025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 발표
- 6.29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재취업(이전직) 분석 결과 발표
- 7.7~8.10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



- 7.2 제2차 기업훈련지원 정책연구 포럼 개최
- 7.11 일학습병행 고교단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최종결과 발표
- 7.1~8.8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모집공고
- 7.10 제11기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교육 개최
- 7.2~7.27 '26년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전(1차) 시행



- 7.2~7.8 능력개발교육원 2025년도 8기 전공분야 보수교육 신청 안내
- 7.7~7.11 능력개발교육원 K-디지털 교직원훈련과정 3차 신청 접수 안내
- 6.23~8.1 2025년 하반기 직업상담사 1급 과정평가형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 7.1~7.3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 신규 모집(세탁, 정리수납, 장례, 한옥시공, 이차전지, 첨단소재, 나노)
- ~7.1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5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 기간 연장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7.1~7.8 훈련이수자평가(8차) 신청·접수
- 7.15~7.31 일반고 특화훈련 신청·접수
- 7.25~7.31 프로젝트 평가(9월) 신청·접수
- 7.28 원격훈련과정심사(3차) 결과 발표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12~6.13 교원역량개발지원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
- 6.17~6.19 2025 ADB 남아시아 직업계고등학교 역량강화사업 지역 컨퍼런스
- 6.20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
- 6.20~6.21 2025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 필수요건 검토 워크숍
- 6.25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컨설턴트 워크숍
- 7.8~7.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워크숍(2차)
- 7.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제91차 HRD 정책포럼)「시시대, 인재의 조건과 정책을 다시 묻다」
- 7.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제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식



- 5.16~7.10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협의체 공모전
- 6.30~7.21 운동청년 댓글 릴레이 이벤트 추진
- 7.4 우리원·무역협회 공동 세미나「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
- 7.14~9.12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7.31 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 6.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협약
- 6.13 한국야금(주) 업무협약 체결 및 철삭공구 무상기증식
- 6.25 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식
- 7.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 7.11 두산로보틱스 업무협약
- 7.15 한국요꼬가와전기 업무협약
- 5.12~6.13 제14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경진대회 개최
- 6.2~7.18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접수
- ~7.18 제9회 벤처창업아이템경진대회 접수
- ~7.31 제4회 전국 고교생 전기자동차제어기술대회 접수
- 연중 계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이주배경구직자 교육생 모집



#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백배 활용법  
(예비숙련기술인전수가 궁금해요)

**HRDK 백배 활용법**

**예비 숙련기술인 전수가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게요

**Q.** 전수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전수 대상**  
전국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재학생입니다.

**지원 내용**  
전수 과정 운영 관련 재료비, 숙박비, 식비 등 일체(교통비 제외)를 지원합니다.

**Q.** 전수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계, 전기전자, 산업설비, 컴퓨터, 자동차, 건축목공, 섬유 등 7개 분야 110개 과정이 있습니다.

※ 전수자 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고도화(전문, 심화, 융합) 과정 운영

**예비 숙련기술인 전수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서 창의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예비 숙련기술인들에게 숙련기술인력의 고속전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Q.** 전수 위원 구성과 운영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전수 위원 구성**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등 우수숙련기술인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운영 절차**

참여학교 모집 → 참여학교 선발 → 과정 실시 → 수료증 지급

# 대학 교육을 「직무능력은행」에 담기 위한 2025년 교과 인정 신청 공고



대학 등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2025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목적

-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에 기반한 교과를 심사·인정하고 교과 이수자에 대한 정보를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자격, 교육, 훈련, 경력)을 저축·통합 관리하고, '직무능력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



## 2.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등에서 '26년 운영 예정인 교과
- '26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 완료되었거나 '27년 이후부터 운영 예정인 교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 7. 7(월) 09:00 ~ 8. 15(금) 18:00
- **신청방법** - 직무능력은행(bank.ncs.go.kr) 기관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교과 인정신청서/교과 운영계획서/교과 평가계획서/성실 참여확인서 \* 각 양식은 사업 공고문의 [별첨]에서 확인 가능

## 4. 인정 절차

- **개요** - 전문대학 등이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반인지(능력단위 일치 여부) 검토, 직무능력은행에 저축 가능한 교과로 인정
- **일정** - (인정심사) 9월 중▷ (결과발표) 10월 17일(금, 예정)
- **결과 처리** - (인정) 직무능력은행제 교과임을 인정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 발급 (불인정) 불인정 사유 및 보완 필요사항 안내  
\* 정해진 기간 내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 최종 결정



- ➔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직무능력은행(bank.ncs.go.kr)에서 확인한 후 홈페이지 기관회원 가입 후 신청
- ➔ 공고문에 별첨된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가이드」의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기획부 담당자(052-714-8829, mjoo1127@hrdkorea.or.kr)에게 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직무능력은행(bank.ncs.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